



## 군입대 안치홍 “2년 뒤 만나요”

시즌 끝나고 경찰청으로... “마음 편안히 다녀오겠다”

‘키스톤콤비’ 김선빈도 상무 입대... KIA 내야진 ‘비상’

KIA 안치홍(24)은 구단의 속 한 번 안 씌인 ‘작한 선수’였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라운드 안팎에서 성실하게 뛰었고, 팀을 대표하는 스타선수지만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다. 진중한 성격의 어린 선수는 사람냄새 나는 선수이기도 하다. 신인시절부터 흔쾌히 이웃돕기 적립활동에 참여한 안치홍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며 더 많은 금액을 내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안치홍은 프런트와 관계자들의 사랑도 독차지한 ‘작한 선수’이자 ‘인기 선수’였다. 그랬던 안치홍이 군대를 가겠다고 처음 구단의 속을 태웠다.

2010년에 이어 2014년 태극 마크를 두고 뜨겁게 이름이 화자 됐던 안치홍은 이번 가을에도 대표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탈락 사실보다 더 아팠던 ‘탈락 과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밤새 뒤척이고도 그라운드에서는 늘 같은 안치홍

이 되어 최고 시즌을 만들어갔다. “무슨 정신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낯투러에도 안치홍은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안치홍이 군입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때 KIA에는 비상이 걸렸었다. 시즌 중반 군입대를 결정한 김선빈에 이어 ‘키스톤 콤비’가 동시에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즌을 앞두고 KIA 안치홍은 “경찰청 수석입대가 올 시즌 목표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고졸 6년 차 선수에게는 군복무 문제가 큰 고민이었다. 태극마크라는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아시안게임만을 보고 가다 보면 오히려 시즌을 망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농담만 진담만 했던 말처럼 안치홍은 경찰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서류 접수를 끝낸 안치

홍은 15일 체력·실기 테스트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안치홍의 입장에서 긴 안목에서 준비했던 계획이다. 마음을 돌려보려던 구단도 안치홍의 뜻을 존중해줬다. 크고 작은 부상에도 V10의 주역이자 팀의 주축선수로 활약을 해준 안치홍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자, 쉽잖아 달려 오느라 지친 심신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팀의 리빌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군문제를 해결한 뒤 부활기를 이끌 베테랑 선수로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작별을 준비하는 안치홍의 마음은 미안함과 고마움이다.

안치홍은 “군복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지치기도 했고 똑같은 모습으로 야구를 할 자신이 없기도 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팀도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만큼 선반이 형과 빨리 군대를 다녀와서 마음 편하게 역할을 하는 게 개인은 물론 팀에도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2년 뒤 팀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내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열심히, 착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경쟁을 통해 당연히 내 자리를 잡겠다. 많은 사랑을 보내준 팬들과 뜻을 존중해준 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양학선 스승’ 최규동 감독

한국체육상 지도자상



‘도마의 신’ 양학선을 키운 최규동 광주체육초 체육 감독이 2014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제52회 체육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체육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최규동 감독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여흥철과 양학선 등을 발굴해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경기상 수상자가 됐다.

전민재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이겨내고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 2013년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서 200m 금메달을 따내며 극복상 수상자가 됐다. 빙상 이규혁의 어머니인 이인숙 여사는 올해 신설된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은 1000만 원이 수여된다. 특별상인 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장관 감사패와 소정의 시상품이 주어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한 시즌 최다 안타 TOP5

넥센 서건창 197 (2014 시즌 중)	해태 이종범 196 (1994년)	LG 이병규 192 (1999년)	롯데 이대호 176 (2011년)	롯데 이대호 174 (2010년)

# 서건창

## 우상을 넘어

(이종범)

# 전설이 되다

·생년월일 : 1989년 8월 22일

·신장 / 체중 : 176cm / 84kg

·포지션 : 내야수(우투좌타)

·경력 : 송정동초-충장중-광주제일고

■ 올 시즌 성적 (10월13일 현재)

경기	타율	안타	득점	출루	타점	도루
125	0.372	197	130	7	67	48

## 13일 고향 광주서 김병현 상대 ‘한 시즌 최다 안타’ 달성

“어머니 앞에서 이종범과 이름 나란히...가문의 영광”

프로 미지명, 신고선수, 방출, 현역 복무, 사회인 야구...

광주일고 출신인 넥센 톱타자 서건창의 야구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잡초 같은 선수의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가 쓰여졌다. ‘프로야구 단일시즌 최다 안타’

지난 13일 KIA와의 경기를 위해 고향을 찾은 서

건창은 광주일고 선배인 김병현을 상대로 2회 2사2루에서 좌중간으로 공을 날리며 1루 베이스를 밟았다. 또 다른 광주일고 대선배 이종범이 1994년 작성했던 196개의 안타를 넘어 프로야구 새로운 기록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서건창의 표정은 담담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말문을 연 서건창은 “야

구를 할 때 이종범 선배님은 나의 우상이었다. 그런 선배님과 이름을 나란히 한다는 자체가 영광스럽다. 가문의 영광이다”고 말했다.

역사의 현장이 자신의 고향이 됐다는 점은 서건창에게도 특별하다. 특히 홀로 묵묵히 자신을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 앞에서 만든 기록이라 더 의미가 있다.

서건창은 “내가 고향에서 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야구장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무심(無心)’이 대기록의 비결이자 앞으로는 마음에 담고 갈 자신의 야구 철학이다.

서건창은 “타석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한다. 투수와 공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시즌 시작 하면 누구나 목표를 높게 잡고 시작은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0안타 기록에 대한) 부담은 없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남은 경기 치르겠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입국... “감사해요”

국내서 3개월간 쉬며 충전

미국프로야구에서 2년 연속 14승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괴물투수’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4일 금요일환향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 류현진은 환영객들을 향해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류현진은 “작년에 이어 많은 분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에 고마움을 전했다.

올 시즌 류현진은 데뷔 첫해였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투를 펼쳤다. 최종성적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로 다저스의 확고한 3선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부상이 아쉬움을 남겼다. 4월 말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던 류현진은 9월13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다시 어깨 부상으로 1이닝 만에 조기 강판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그러나 10월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선전하며 지난해 포스트시즌 한국인 투수 첫 선발승에 이어 또 하나의 발자취를 남겼다.

류현진은 3개월가량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 행사 등으로 국내 팬들과 만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여자프로농구 내달 1일 개막

여자프로농구 2014-2015시즌 정규리그가 11월 1일 개막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1월 1일 청주에서 열리는 청주 국민은행과 구리 KDB생명의 경기로 정규리그를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팀당 35경기씩 7라운드 총 105경기가 열리며 정규리그 2.3위가 벌이는 플레이오프는 3전2승제로 진행된다.

또 챔피언결정전은 5전3승제로 열리며 우승 타전은 2015년 1월 18일 청주에서 펼쳐진다. 시범경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정규리그는 2015년 3월 10일에 끝나고 플레이오프는 3월 15일, 챔피언결정전은 3월 22일에 각각 시작한다. 챔피언결정전이 5차전까지 진행되면 전체 시즌은 총 5개월에 걸쳐 3월 29일에 종료된다.

자세한 경기 일정은 WKBL 인터넷 홈페이지(www.wkb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